

25-22(통권 1001호) 2025.12.19

경제주평

■ 2026년 글로벌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2026년 글로벌 트렌드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6년 글로벌 트렌드	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
신 지 영 연 구 위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강 성 현 선 임 연 구 원 (2072-6221, shkang@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6년 글로벌 트렌드

■ 개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정치, 군사·외교, 경제, 사회,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2026년 새롭게 주목받거나,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7개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정치 분야는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사라진 평화와 분쟁의 일상화'** 2개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경제 분야는 **'세계 경제 공식 변화'**와 **'커지는 자본시장 위기 가능성'** 2개 트렌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이 깊은 사회 분야 트렌드로 **'우려되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분야는 **'AI, 현실인가 허상인가?'**와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시장'**을 선정하였다.

■ 2026년 글로벌 트렌드

①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

세계적인 포퓰리즘 정부의 확산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급변은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마찰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은 대중영합주의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의 득세는 해당국의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외교적 군사적 마찰을 유발하기도 한다. Manuel Punke, etc(2024)의 분석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권 집권 후 15년이 지나면 1인당 GDP가 정상 성장 대비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와 부자유 국가가 증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좌우 포퓰리즘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 영국개혁당(Reform UK), 프랑스 국민연합(National Rally), 독일대안세력당(AfD) 등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며, 폴란드도 법과 정의당(PiS)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자유지수 기준 자유국가와 부분자유국가는 2015년 대비 2025년에 각각 5개국씩 감소한 반면 부자유국가는 8개국 증가하였고, 민주주의지수 기준(2015년 대비 2024년)으로도 권위주의 체제국이 6개국 증가하는 등 좌우 포퓰리즘 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 등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는데 포퓰리즘 정부의 등장과도 연관이 깊어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2015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국가에서 결함있는 민주주의국가로, 우크라이나는 결함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혼합된

체제국으로 각각 평가 전환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결합있는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체제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포퓰리즘 정당 및 정부의 약진에는 세계 경제는 물론 군사적 충돌 등 지정학적 불안정성 및 글로벌 공급망 등의 훼손 유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② 사라진 평화와 분쟁의 일상화

전 세계적으로 군사 분쟁과 통상 갈등이 동시에 일상화·구조화되면서, 국제 질서는 **평화를 상시적으로 전제하기보다 다층적 분쟁을 관리·통제하는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고강도 내전이 지속되고 다국적 개입이 확대되는 등 분쟁의 양상은 복잡성과 범위가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분쟁에 참여한 국가는 98개국으로 2008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내전으로 1,000명 이상 사망한 국가는 17개국에 달하였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세계 군사비는 10년 연속 증가해 2024년 2조 6,765억 달러에 이르렀고, 미국·중국·NATO 등 주요국 모두 국방 예산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무역제한 조치가 누적되며 보호무역 기조가 고착되고 있다. 2025년까지 누적된 수입규제의 적용 무역 규모는 4조 6,930억 달러(세계 수입의 19.7%)로 전년 대비 7.1%p 증가하였으며, 기존 조치들이 철회 없이 유지되는 중이다. 또한 WTO 내 통상 관련 우려 제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2025년 연평균 제기 건수는 305건으로, 과거 10년 평균(169건) 대비 약 81% 늘었고, 그중 다수가 반복 제기된 사안으로 구조적 갈등의 심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군사 분쟁 및 통상 갈등의 구조화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며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략 산업 보호, 공급망 다변화, 분쟁 대응 역량 제고 등 복합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③ 세계 경제 공식 변화

개도국 고성장 둔화를 계기로 세계 경제는 **성장의 구조 전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개도국 성장 부진은 글로벌 자본과 교역 흐름 변화로 이어지며 세계 성장 방향성 전반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평균 5.4%(2000~2019년)의 고성장을 지속한 개도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뚜렷한 반등 없이 4% 초반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 성장 둔화 배경에는 개도국 경제의 약 40.2%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8년 이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개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개도국 성장 약화는 향후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흐름 재편과 함께 세계 성장 구조 변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투자 측면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이 축소되면서 성장잠재력과 투자 환경에 대한 매력력이 약화하고 있다. 교역 부문에서도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

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개도국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선진국을 하회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개도국 고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세계 경제 성장 구조가 전환 국면에 진입한 만큼 한국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주요 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커지는 자본시장궤 위기 가능성

에브리띵 랠리(Everything Rally)는 자산 간 리스크 동조화를 높여 작은 시장 충격에도 자본시장궤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3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동성은 재차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한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G4(미국, EU, 중국, 일본)의 광의통화(M2)는 '23년 10월부터 재확대되어 '25년 10월 96.1조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3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었으며, '24년부터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23년 하반기부터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위기 발생 시 자본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인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가격도 '24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세계국채지수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위험자산인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도 '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은 시장 충격 발생 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 왔으나, 에브리띵 랠리로 인해 자산 간 리스크 헷지 기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작은 시장 충격에도 자본시장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11개 주요 자산 간의 이동상관계수 추이를 계산한 결과, 자산 간 리스크 공유 구조가 2021년 이후 강화되었으며, 이는 위기 발생 시 모든 자산이 함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 버블 등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전체 자본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자본시장 리스크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투자자는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⑤ 우려되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

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이 글로벌 중산층의 생계를 압박,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브루킹스연구소의 Homi Kharas(2017)는 일평균 소득이 11~110달러에 속하는 글로벌 중산층 규모가 2025년에 46.2억 명에서 2030년에는 54.1억 명으로 17.1% 증가, 같은 기간 소비 규모는 52.2조 달러에서 63.9조 달러로 2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고물가 지속,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등으로 글로벌 중산층의 생계 압박이 세지면서 소비 확대 속도도 둔**

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당분간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물가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글로벌 중산층 삶의 질 저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0~2024년 2.9%에서 2025~2030년 3.2%로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이나, 이는 2010년 3.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2030년 3.5%로 2020~2024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나 아시아 신흥개도국을 제외하면 2010년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 현상 해소 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중산층에 대한 비용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전망이다 가운데 일본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2026년에 종료되어 2027년 말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0.5~2.75%p 정도 높을 전망이다. **따라서,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내 소비재 수출 둔화, 인바운드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외수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⑥ AI, 현실인가 허상인가?

AI 기술이 신경계·신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AI라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실제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AI는 단기적 과열을 넘어 미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에서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가운데 AI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1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53%는 AI 주식이 이미 버블 상태라고 평가하는 등 AI 기술이 실제 수익 창출력 및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의 10년 평균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s Ratio)이 11월 39.1까지 상승, 과거 닷컴 버블 시기 최고치였던 44.2(1999년 12월)에 근접하며 AI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AI 시장은 외형상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하나,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과도한 기대, 대규모 투자 집중, 미래 성장 가능성에 편중된 가치 평가 등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하지만, IT산업에 국한되었던 닷컴 버블과 달리 AI는 제조, 금융, 바

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이며, 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산업 혁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산업 구조 전환을 대비한 인력 및 제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

⑦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디지털 자산시장은 과거 암호화폐 중심의 투기적 거래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실물·금융자산(RWA)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산·저장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개념이 점차 확대되었다. IMF, BIS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무담보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증권, RWA 토큰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금융 자산이 토큰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 및 유동성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전통적 금융이 온체인(On-chain) 금융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채권,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금융 및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유통 및 거래하는 RWA 시장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WA 토큰화 시장 규모는 2021년 12월 말 9.0억 달러에서 2025년 12월 7일 기준 181.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115%의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채권·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예술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까지 토큰화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지급·결제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도 RWA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간 교환 수단'을 넘어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 자금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유동성 인프라는 RWA 시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도 점차 마련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시장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EU·홍콩 등은 샌드박스를 통해 RWA 토큰화 실험 및 규제 유연화를 진행 중이며, 한국도 토큰증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부와 기업들은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1. 개요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정치, 군사·외교, 경제, 사회,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2026년 새롭게 주목받거나,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7개 트렌드를 선정
 - 정치 분야는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 군사·외교 분야에서는 ‘사라진 평화와 분쟁의 일상화’ 를 선정
 - 경제 분야는 ‘세계 경제 공식 변화’, ‘커지는 자본시장궤 위기 가능성’ 2개 트렌드를 선정, 사회 분야는 경제 분야와 관계가 깊은 ‘우려되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 을 선정
 - 산업·기술 분야는 ‘AI, 현실인가 허상인가?’,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을 선정

< 2026년 글로벌 트렌드 >

분야	주제	내용
정치	1.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	▶ 세계적인 포퓰리즘 정부의 확산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급변은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마찰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
군사·외교	2. 사라진 평화와 분쟁의 일상화	▶ 분쟁의 일상화와 통상 갈등의 구조화가 무역 질서를 흔들며 국제안보 및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
경제	3. 세계 경제 공식 변화	▶ 개도국 고성장 둔화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성장의 구조 전환 국면에 진입
	4. 커지는 자본시장궤 위기 가능성	▶ 에브리띵 랠리는 자산 간 리스크 동조화를 높여 작은 시장 충격에도 자본시장궤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사회	5. 우려되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	▶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이 글로벌 중산층의 생계를 압박,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산업·기술	6. AI, 현실인가 허상인가?	▶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AI는 단기적 과열을 넘어 미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7.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 디지털 자산시장이 실물·금융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

2. 2026년 글로벌 트렌드

① 포퓰리즘(populism)의 시대

○ (의미) 세계적인 포퓰리즘 정부의 확산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사회 환경의 급변은 물론 주변국과의 외교적 군사적 마찰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

- 포퓰리즘은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대중영합주의라는 개념으로 사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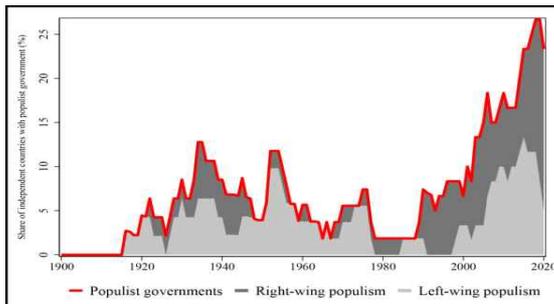
- 포퓰리즘의 득세는 해당국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외교적 군사적 마찰을 유발하기도 함

· Manuel Funke, etc(2024)의 분석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권 집권 후 15년이 지나면 1인당 GDP가 정상 성장 대비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²⁾

○ (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우파 포퓰리즘 정당들이 약진하는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와 부자유 국가가 증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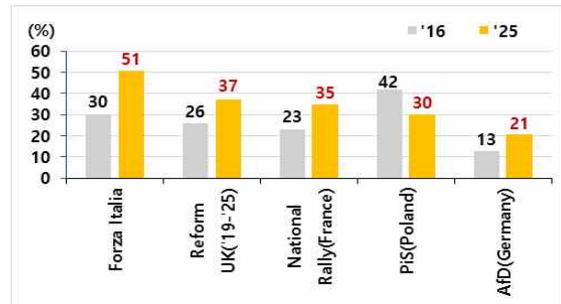
- 2000년대 들어 좌우 포퓰리즘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 포퓰리스트 정부 비중 추이 >



자료 : Manuel Funke, Christoph Trebesch, Moritz Schularick,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ism, Kiel Focus, Kiel Institute, Sep., 2024.

< 주요국 우파 포퓰리즘 정당 지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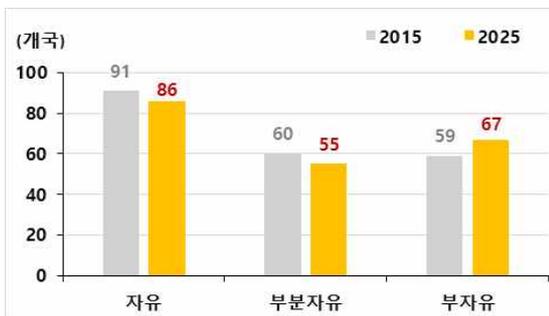
자료 : Pew Research Center, How people view political parties in 24 countries in 2025, Sep. 15, 2025.

1) Ionesou Ghita & Emst Gellner(1969), Populism: It's Meaning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New York, Macmillan: Rudiger Dombusch, Sebastian Edwards(1991), The Macroeconomics of Populism in Latin Americ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용정·이부형, 포퓰리즘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그리스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주평 17-7(통권 732호), 현대경제연구원, 2017.02.01.과 이부형·이택근·신지영·노시연,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경제주평 25-18(통권 997호), 2025.11.0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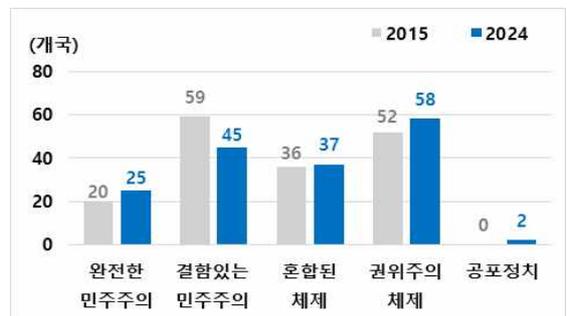
2) 1900~2020년까지 28개국 포퓰리즘 정권을 분석한 결과. Manuel Funke, Christoph Trebesch, Moritz Schularick,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ism, Kiel Focus, Kiel Institute, Sep., 2024.

- 유럽의 경우, 전진이탈리아(Forza Italia), 영국개혁당(Reform UK), 프랑스국민연합(National Rally), 독일대안세력당(AfD) 등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며, 폴란드도 법과정의당(PIS)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
- 세계자유지수와 민주주의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유국가와 민주주의국가로 평가받는 국가가 감소한 반면 부자유국가와 권위주의 체제 국가가 증가
 - 세계자유지수 기준 자유국가와 부분자유국가는 2015년 대비 2025년 각각 5개국씩 감소한 반면, 부자유국가는 8개국이 증가³⁾
 - 민주주의지수 기준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는 2015년 대비 2024년 5개국 증가한데 반해 결합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14개국 감소, 같은 기간 권위주의 체제국은 6개국, 공포정치 체제국은 2개국 증가⁴⁾

< 세계자유지수로 본 유형별 국가 >



< 민주주의지수로 본 정치 특성별 국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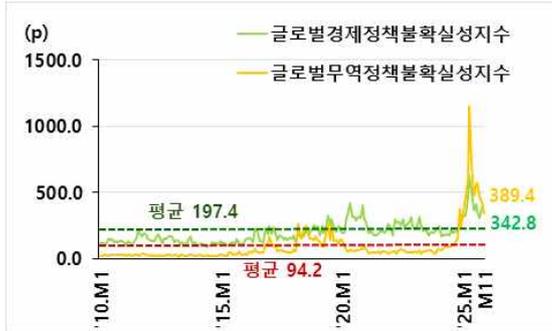


자료 : Freedom House, Freedom in World Report, 각년 자료 : EIU, Democracy Index.

- 미국 통상정책 변화,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 등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승
 - 최근 글로벌 경제정책불확실성지수와 무역정책불확실성지수는 각각 342.8(2025년 10월), 389.4(동 11월)로 2010년 평균 각각 197.4, 94.2를 대폭 상회
 - 지정학적 리스크지수는 2025년 11월 99.9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부터 러·우 전쟁 이전인 2022년 2월까지 평균 92.8을 상회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 평균이 138.0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불안정한 상태
 - 미국은 2015년 이후 완전한 민주주의국가에서 결합있는 민주주의국가로 전환,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체제국가, 우크라이나는 결합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 혼합된 체제국으로 전환, 이스라엘은 결합있는 민주주의국가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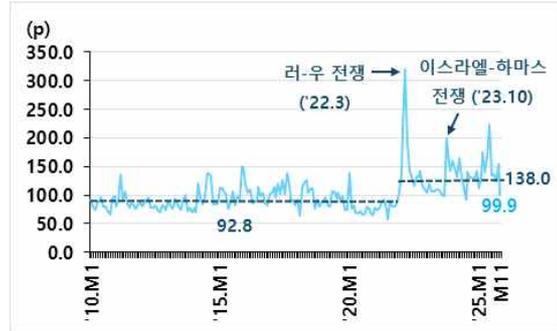
3) 세계자유지수 값이 1.0~2.5면 자유국, 3.0~5.0이면 부분자유국, 5.5~7.0이면 부자유국. Freedom House.
 4) 민주주의지수 값이 8.1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6.1~8.0이면 결합있는 민주주의, 4.1~6.0이면 혼합된 체제, 1.1~4.0이면 독재체제, 1.0 이하는 공포정치 체제로 구분. EIU.

<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정책불확실성 지수 >



자료 : www.policyuncertainty.com.

< 지정학적 리스크지수 >



자료 : www.policyuncertainty.com.

< 주요국 포퓰리즘 정당 및 지도자 사례 >

국가	정당	지도자	주요 정책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Donald Trump)	▶미국우선주의, 제국주의, 다자주의 부정, 불개입주의 ▶반불법이민, 반기후대책, 반성소수주의의, 시민단체 해산, 언론 등 반대 세력 탄압 등
일본	자민당	타카이치 사나에 총리 (高市早苗)	▶자위대 위상 강화, 방위비 증액, 평화헌법 개정 지지, 고노 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 부정 ▶동성결혼 및 성평등 관련 법률 반대
이탈리아	이탈리아 형제당	조르자 멜로니 총리 (Giorgia Meloni)	▶반이민·반난민, 친서방·반러·반중 ▶성소수자 및 페미니즘 반대 등 전통 가치 강조
이스라엘	리쿠드 국민자유운동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 (Benjamin Netanyahu)	▶OECD 가입 등 경제적으로는 성공과 중동 이슬람국 가들과의 수교 등 외교 관계 개선 ▶對팔레스타인 초강경 노선으로 전쟁 야기 ▶장기집권, 삼권분립 부정,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역대 최악의 총리라는 평가
러시아	무소속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Madimir Putin)	▶강대국·제국식 민족주의, 반서방 표방 ▶대통령 연임 제한 철폐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 ▶장기 집권, 언론 탄압, 검열 제도, 국가주도 부패 기업 지원, 전쟁 등
중국	공산당	시진핑 국가주석 (習近平)	▶헌법상 국주식직 22임 초과 금지조항 삭제 종신 집권 추구 ▶대내적으로는 비판세력 탄압, 우상화 등 권위주의적 행보, 강압 노선, 경제성장세 둔화 ▶대외적으로는 팽창주의, 미국과의 갈등, 소수민족 탄압, 역사 왜곡, 친러 노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 (시사점) 글로벌 포퓰리즘 정당 및 정부의 약진에는 세계 경제는 물론 군사적 충돌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 및 글로벌 공급망 등의 훼손 유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만큼 적절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를 꾀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② 사라진 평화와 분쟁의 일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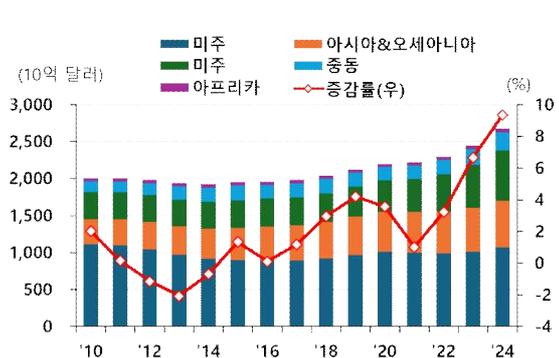
- (의미) 분쟁의 일상화와 군비·통상 갈등의 구조화로 국제사회의 분쟁 대응 논리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평화는 기본 전제가 아닌 ‘예외적 상태’로 인식되고 있음
 -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관리에 집중되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보다 제한적으로 통제·관리되는 국면으로 전환 중
- (내용) 군사적 긴장과 통상 분쟁이 병행 심화되며, 국제 질서의 안정성과 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 최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분쟁은 고강도 내전 지속과 다국적 개입 증가 등 복잡성과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
 - IEP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000명 이상이 내전으로 사망한 국가는 17개국(1999년 이후 최고치)에 달해 고강도 내전이 다수 지역에서 지속 중
 - 최근 5년간 98개 국가가 분쟁에 관여(2008년 대비 66% 증가)하였는데, 개입 양상은 제3국 정부에 대한 지원이나 무장세력 대응 등 간접적·다층적인 대리전 형태가 주를 이룸
 - 세계 군사비는 주요국의 위협 인식 심화와 지정학적 경쟁 격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SIPRI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2조 6,765억 달러(10년 연속 증가)
 - 미국은 2026년(회계연도) 9,01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확정하였고, NATO는 2025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 대비 5%로 증액하기로 합의
 - 중국 국방비 또한 미·중 전략경쟁 및 대만해협 긴장 지속 등에 따라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2025년 1조 7,800억 위안, 2022년부터 4년 연속 7%대 증액)

< 지역별 세계평화지수(GPI) >

지역	2015	2020	2025
중동·북아프리카	2.385	2.513	2.37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52	2.406	2.310
서·중유럽	2.199	2.264	2.299
동유럽·중앙아시아	2.166	2.225	2.213
남미	2.053	2.159	2.180
북중미	2.030	2.106	2.157
아시아-태평양	1.881	1.892	1.882
전세계 평균	1.542	1.615	1.588

자료 : 호주 경제평화연구소(IEP), 각년도 GPI 보고서
 주 :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롭고, 5에 가까울수록 폭력과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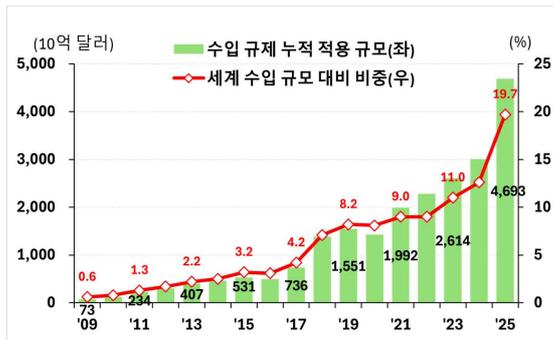
< 세계 군사비 지출 >



자료 :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5).
 주 : 2023년 물가·환율을 고려한 실질 기준.

- 또한, 자원 및 통상 분야에서도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제도화되며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입규제 적용 무역 규모는 4조 6,930억 달러(2009~2025 누적치)로, 세계 전체 수입의 19.7%를 차지
 - 2010년대 후반 이후 무역제한 조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 조치들이 철회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수입규제를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
- 특히 WTO 내에서도 통상 관련 우려 제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일 사안이 반복 논의되는 구조적 분쟁으로의 전환이 뚜렷해지는 중
 - 2020~2025년 기간 중 연평균 통상 우려 제기 건수는 305건으로, 직전 10년(2010~2019년) 평균인 169건에 비해 약 81% 증가. 이 중 66%가량은 과거에 이미 논의된 사안이 재차 제기된 사례
 - 이는 2020년대 들어 WTO 회원국들이 제기하는 통상 우려가 일시적 갈등을 넘어 장기화·구조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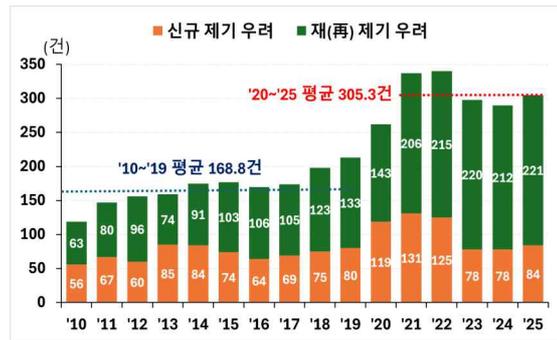
< 수입규제 적용 규모 및 비중(누적) >



자료 : WTO(November, 2025).

- 주1) 2025년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시행된 기타 무역 및 무역 관련 수입 조치 (other trade and trade-related import measures)를 기준으로 산정.
- 주2) HS코드 명시 조치만 포함. 무역구제 조치는 미포함.

< WTO 무역우려 제기 건수 >



자료 : WTO Trade Concerns Database.

- 주 : 재(再) 제기 우려는 이전 회기에서 이미 제기된 무역우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으로 다시 논의된 건수를 의미.

○ (시사점) 군사 분쟁 및 통상 갈등의 구조화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며 무역·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전략 산업 보호, 공급망 다변화, 분쟁 대응 역량 제고 등 복합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됨

강 성 현 선임 연구원 (2072-6221, shkang@hri.co.kr)

③ 세계 경제 공식 변화

○ (의미) 개도국 고성장 둔화를 계기로 세계 경제가 성장의 구조 전환 국면에 진입

-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주도의 성장 흐름이 약화한 가운데 대내외 여건 상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며 세계 경제 성장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됨

○ (내용) 최근 개도국 성장 부진은 글로벌 자본과 교역 흐름 변화로 이어지며 세계 성장 방향성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그동안 세계 경제의 성장 방향을 결정해 온 개도국의 성장이 코로나19 위기 이후 크게 둔화한 가운데, 특히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2000년대 이후 평균 5.4%(2000~2019년)의 고성장을 지속한 개도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뚜렷한 반등 없이 4% 초반대 성장률을 지속하는 상황
 - 기여도 기준으로도 과거 성장 국면에서는 개도국이 약 3%p를 설명하였으나, 2026년에는 2.5%p로 낮아지며 세계 경제 견인력이 둔화
 - 이러한 개도국 성장 둔화 배경에는 개도국 경제의 약 40.2%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장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8년 이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개도국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이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개도국 성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투자 및 교역 흐름 재편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 세계 경제성장률 · 경제권별 기여도 > < 개도국 · 중국 경제성장률 및 비중 >



자료 :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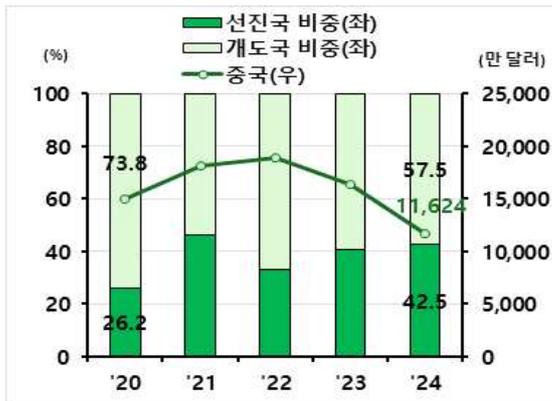
주 : 기여도는 PPP 기준 GDP 비중 적용.



자료 : IMF.

- (투자)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이 축소되면서 개도국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환경에 대한 매력도 또한 약화하는 흐름
 - 개도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중국이 2022년 1.9억 달러를 고점으로 2024년 1.2억 달러까지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66.9%에서 57.5%까지 축소
 - 반면,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FDI 규모가 동기간 0.9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전 세계 FDI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5%까지 확대되는 등 글로벌 자본 흐름도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
- (교역)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 또한 개도국에 비우호적으로 전개되는 상황
 - 개도국 수출 증가율은 2021년 이후 선진국의 수출 증가율에 역전된 이후 2025년에도 10월 누계 기준 2.0%로 선진국(2.6%)을 하회하고 있음
 - 이는 공급망 재편, 선진국 리쇼어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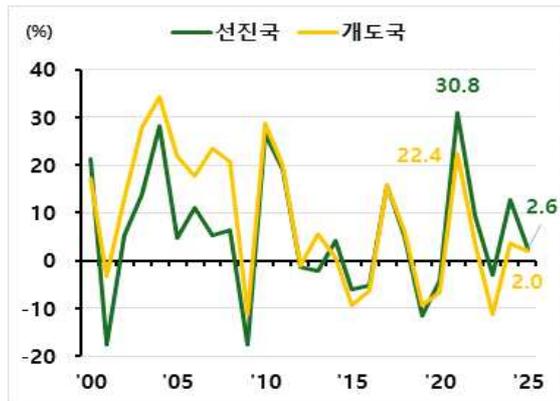
< 개도국 · 중국 외국인 직접투자 >



자료 : UNCTAD.

주 : 비중은 전 세계 FDI(Inflow) 대비 기준.

< 경제권별 수출 증가율 >



자료 : IMF,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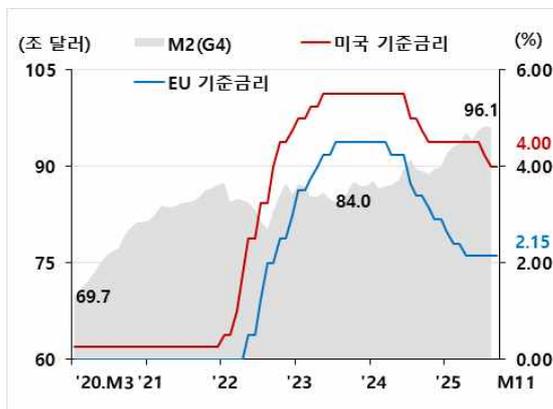
- (시사점) 개도국 고성장에 기반한 기존의 세계 경제 성장 구조가 전환 국면에 진입한 만큼 한국은 구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하에 주요 산업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 지 영 연구 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④ 커지는 자본시장發 위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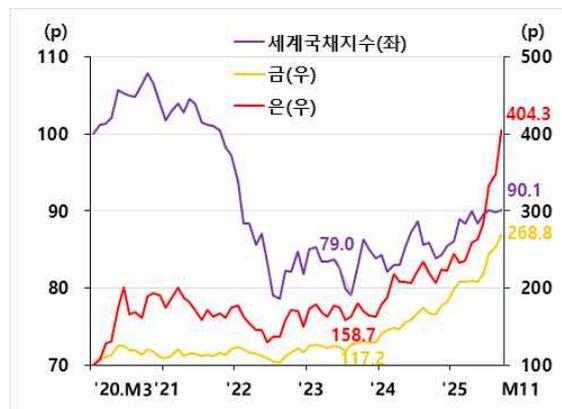
- (의미) 에브리띵 랠리(Everything Rally)는 자산 간 리스크 동조화를 높여 작은 시장 충격에도 자본시장發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내용) '23년 하반기부터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약화시켜 위기 발생 시 자본시장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임
- '23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유동성은 재차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또한 최근까지 지속
 - 팬데믹 이후 유동성의 대량 공급으로 G4(미국, EU, 중국, 일본)의 광의통화(M2)는 '20년 3월 69.7조 달러에서 '22년 말 80조 달러 중반대까지 증가
 - '23년 10월부터 유동성이 재확대되며 '25년 10월 96.1조 달러를 기록
 - 한편, '23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24년부터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됨
- 그로 인해 '23년 하반기부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띵 랠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이어짐
 - 주요 자산가격을 '20년 3월 기준으로 지수화한 결과, '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정을 받았던 주요 자산가격은 '23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
 -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은 가격도 '24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세계국채지수도 상승 추세로 전환

< G4의 M2 및 미국, EU 기준금리 >



자료 : FRED, Bloomberg.
 주 : G4는 미국, EU, 중국, 일본.

< 주요 안전자산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주 : '20.03 = 100으로 자산가격을 지수화.

- 동시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가상화폐 가격도 '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상승세가 지속
- 에브리명 랠리로 인해 자산 간 리스크 헷지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작은 시장 충격에도 자본시장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확대
 - 채권·금 등의 안전자산은 전통적으로 시장 충격 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 왔으나, 에브리명 랠리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약화됨
 - 실제로 11개 주요 자산 간의 이동상관계수⁵⁾ 추이를 계산한 결과, '07~'20년까지는 0.2 초중반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이후에는 0.3~0.5 범위에서 등락하며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즉, 자산 간 리스크 공유 구조가 강화되어 위기 발생 시 모든 자산이 함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
- 특히, 최근 거론되고 있는 AI 버블 등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전체 자본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위험자산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주 : '20.03 = 100으로 자산가격을 지수화.

< 자산 간 이동상관계수 >



자료 :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정부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자본시장 리스크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투자자는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를 지양해야 함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5) 채권지수(미 국채 10년, 신흥국 국채, 회사채), 주가지수(S&P500, MSCI 비미국·신흥국), 원자재(원유, 금, 은), 비트코인 등 11개 자산의 월간 수익률로 산출한 이동상관계수(3개월)를 3년 이동평균한 값.

⑤ 우려되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

○ (의미) 성장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이 글로벌 중산층의 생계를 압박, 소비 둔화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

- 글로벌 경제 여건 개선 지연으로 글로벌 중산층 확대 속도 및 소비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점증

- 1인당 GNI가 1,136~1만 3,935달러 수준에 속하는 세계 중위소득 인구 규모는 2015년 56.3억 명에서 2024년 59.5억 명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약 73%에 이룸
- 일평균 소득 11~110달러에 속하는 글로벌 중산층 규모는 2025년 46.2억 명에서 2030년 54.1억 명으로 17.1%, 같은 기간 소비 규모는 52.2조 달러에서 63.9조 달러로 22.4%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소득구간별 세계 인구 규모 >



< 세계 중산층 및 소비 규모 전망 >



자료 : World Bank.

주 : 2024년 1인당 GNI(국민소득) 기준 저위소득 1,135달러 미만 중하위소득 1,136~4,465달러 중상위소득 4,466~13,935달러 고위소득 13,936달러 이상

자료 : Homi Kharas,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Global Economy & Development Working Paper 100, Feb. 2017, Brooking.

○ (내용)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고물가 지속,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등으로 글로벌 중산층의 생계 압박이 세지면서 소비 확대 속도도 둔화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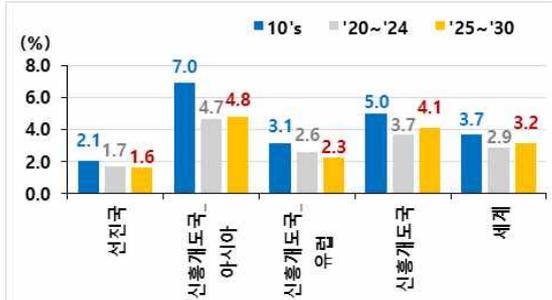
- 당분간 글로벌 경제성장률과 물가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글로벌 중산층 삶의 질 저하 가능성 확대

- 세계 경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을 바탕으로 2020~2024년 2.9%에서 2025~2030년 3.2%로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이나, 2010년대 3.7%에 비해 낮은 수준

6) 중산층의 개념은 OECD가 중위소득의 75~200%, World Bank는 GNI 기준 1,136~1만 3,935달러, Homi Kharas(2017, 2023)가 실질 ppp 기준 일평균 소득(11~110달러)과 지출 가능액(12~120달러)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관, 연구자 등에 따라 차별화. Homi Kharas, The Unprecedented Expansion of the Global Middle Class, Global Economy & Development Working Paper 100, Feb. 2017, Brooking; Homi Kharas, The Rise of the Global Middle Class, Brookings Institute Pres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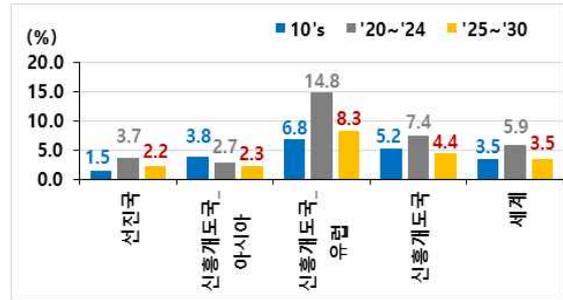
- 한편,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2030년 3.5%로 2020~2024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아시아 신흥개도국을 제외하면 2010년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물가 현상 해소 시기는 지연될 전망

< 성장단계별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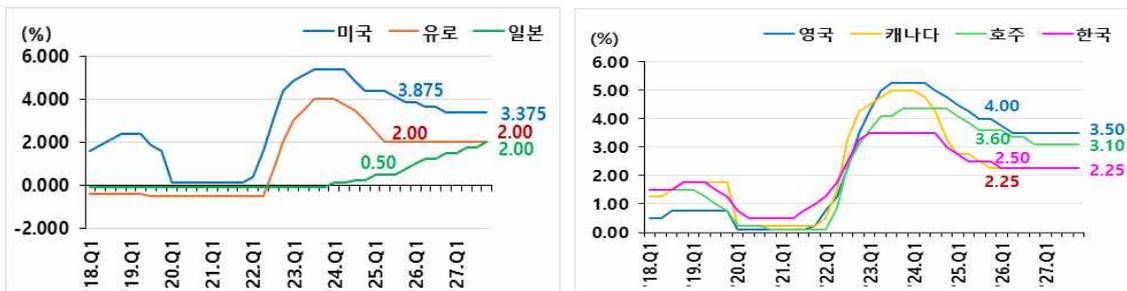
< 성장단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



자료 : IMF, 현대경제연구원.

- 한편, 주요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종료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중산층에 대한 비용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유로 지역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미 종료된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2026년 말에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전망이다 가운데 일본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도 2026년에 종료, 2027년 말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0.5~2.75%p 높을 전망

< 주요국 정책금리 추이 및 전망 >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2, Dec, 2025.

주 : 미국은 연준 기준금리 중앙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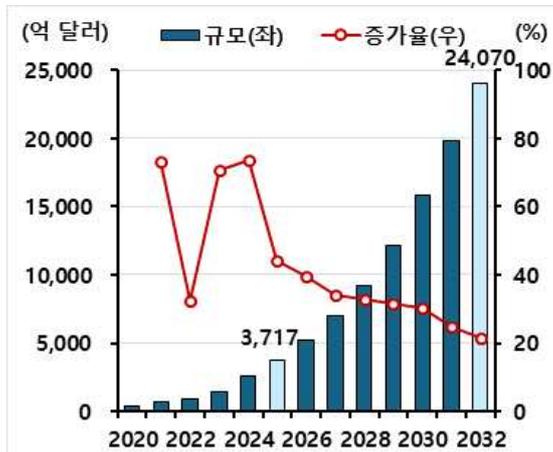
- (시사점) 글로벌 중산층 소비 위축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소비재 수출 둔화와 인바운드 관광 수요 감소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⑥ AI, 현실인가 허상인가?

- (의미) AI 기술이 신경제·신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둘러싼 논의가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AI라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구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실제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내용)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AI는 단기적 과열을 넘어 미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최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에서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
 -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378억 달러에서 2025년 약 3,717억 달러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에도 연평균 30.6% 성장하여 2032년에는 2조 달러를 상회할 전망
 - 이처럼 AI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가운데 AI 기업의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뱅크오브아메리카(BoA) 11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매니저의 53%는 AI 주식이 이미 버블 상태라고 평가하는 등 AI 기술이 실제 수익 창출력 및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인식 확산

< 글로벌 AI 시장 규모 및 증가율 >



자료 : 김태영(2025), 글로벌 AI 산업의 현황 및 성장 요인 분석과 시사점, 월간 KIET 산업경제, 322, 30-44. 재인용.

<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



자료 : Shiller Data(<https://shillerdata.com>).
주 : 물가를 반영한 S&P500 지수와 주당순이익의 10년 평균값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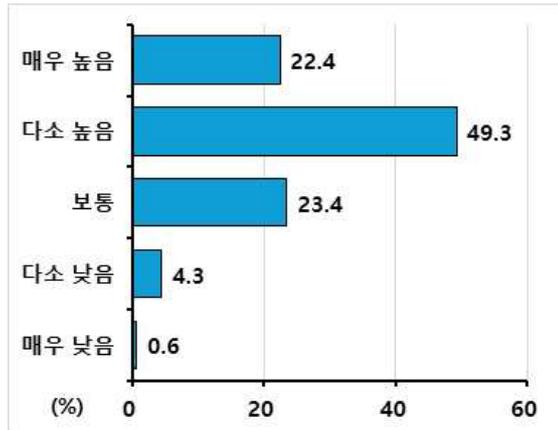
- 또한, 미국 시장의 10년 평균 주당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 Cyclically Adjusted Price Earnings Ratio)이 11월 39.1까지 상승, 과거 닷컴 버블 시기 최고치였던 44.2(1999년 12월)에 근접하며 AI에 대한 비관론 확대
- 현재 AI 시장은 외형상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하나,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현재 AI 시장은 과도한 기대, 대규모 투자 집중, 미래 성장 가능성에 편중된 가치 평가 등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 유사
 - 그러나 IT산업에 국한되었던 닷컴 버블과 달리 AI는 제조, 금융, 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 중이며, 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71.7%는 AI의 투자 대비 효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특히 업무 시간 단축과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개선에 유용하다고 평가

< AI 활용 성과 사례 >

기업	활동	AI 활용 성과
메르세데스-벤츠	생산 운영	생산 효율성 25% 향상
JP Morgan	기업 인프라	신용 계약 검토 시간 초 단위로 단축
인실리코 메디슨	기술개발	시간 1/3로 단축, 비용 1/10로 절감
아마존	마케팅·판매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증대

자료 : 송단비 외(2024),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298.

< AI 도입의 투자 대비 효과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25), 기업의 AI 활용 현황 및 실태분석.

- (시사점)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산업 혁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산업 구조 전환을 대비한 인력 및 제도 재정비 등이 필요

노 시 연 연 구 위 원 (2072-6248, syroh@hri.co.kr)

⑦ 부상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 (의미) 디지털 자산시장은 과거 암호화폐 중심의 투기적 거래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나, 이제는 실물·금융자산(RWA) 토큰화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돌입

○ (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실물·금융 자산이 토큰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결제 및 유동성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전통적 금융이 온체인(On-chain) 금융으로 확장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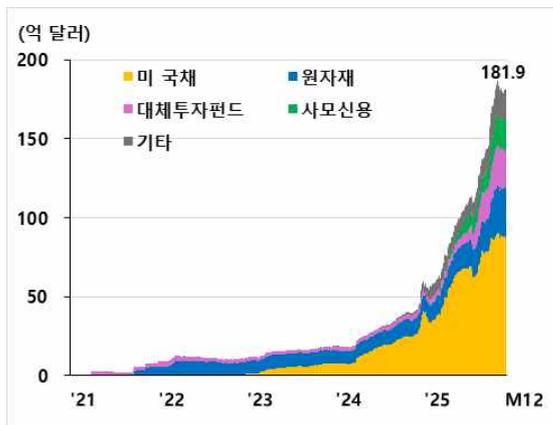
-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생산·저장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거래가 가능한 자산으로 개념이 점차 확대
· IMF, BIS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무담보 암호화폐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증권, RWA 토큰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 채권,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금융 및 실물자산을 토큰화하여 유통 및 거래하는 RWA 시장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

· RWA 토큰화 시장 규모는 2021년 12월 말 9.0억 달러에서 2025년 12월 7일 기준 181.9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115%의 성장세를 보임

· 자산별로는 미 국채·MMF 등의 채권과 주식이 빠르게 토큰화되고 있으며, 부동산·예술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 영역으로 점차 확대 중임

< RWA 토큰화 시장 규모 >



자료 : RWA.xyz, 현대경제연구원.
주1) 기타는 非 미 국채, 회사채, 공모·사모펀드
2) 2025년 12월 7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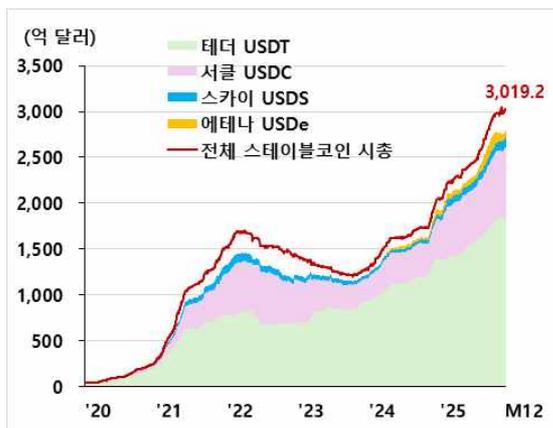
< RWA 토큰화 주요 사례 >

구분	기초자산	시가총액 (달러)
블랙록 비들(BUIDL)	미 국채	20.2억
테더 골드	원자재(금)	16.3억
팍스(Paxos) 골드	원자재(금)	14.3억
시럽(Syrup) USDC	사모신용	14.8억
씨클 USYC	미 국채	13.0억

자료 : RWA.xyz.
주 : 2025년 12월 7일 기준.

-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지급·결제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화폐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빠른 성장도 RWA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통화 또는 안전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암호화폐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여 2025년 12월 7일 기준 3,019억 달러에 달함
 - 향후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간 교환 수단’ 을 넘어 온체인과 오프체인 간 자금이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유동성 인프라는 RWA 시장을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도 점차 마련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일부 디지털 자산·토큰증권을 중심으로 제도 및 법안 도입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EU·홍콩 등은 샌드박스를 통해 RWA 토큰화 실험 및 규제 유연화를 진행 중이며, 한국도 토큰증권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음

<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



자료 : RWA.xyz.
주 : 2025년 12월 7일 기준.

< 해외 RWA 토큰화 정책 현황 >

구분	내용
미국	온체인 증권시장에 대한 조건부 허용·가이드라인을 마련 중
EU	분산원장기술 기반 증권시장 인프라에 대해 한시적 규제 예외를 부여
홍콩	프로젝트 앙상블 및 샌드박스를 통해 RWA 토큰화 실험·허용 범위를 확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으로 증권형 토큰을 유가증권으로 규정, 토큰화 규제를 명확화

자료 : SEC, ESMA, HKMA, World Bank.

○ (시사점) 디지털 자산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부와 기업들은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적 보완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함

이 택 근 연 구 위 원 (2072-6366, tklee@hri.co.kr)